

제3호
(Vol. 3)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뉴스레터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산업학과 학과장 김기성 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 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은 건강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학과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산업 각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로 체계적이고, 다학제적인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호 뉴스레터도 학과 주요소식, 보건의료산업 동향, 보건의료산업체 인터뷰, 실습 및 취업 노하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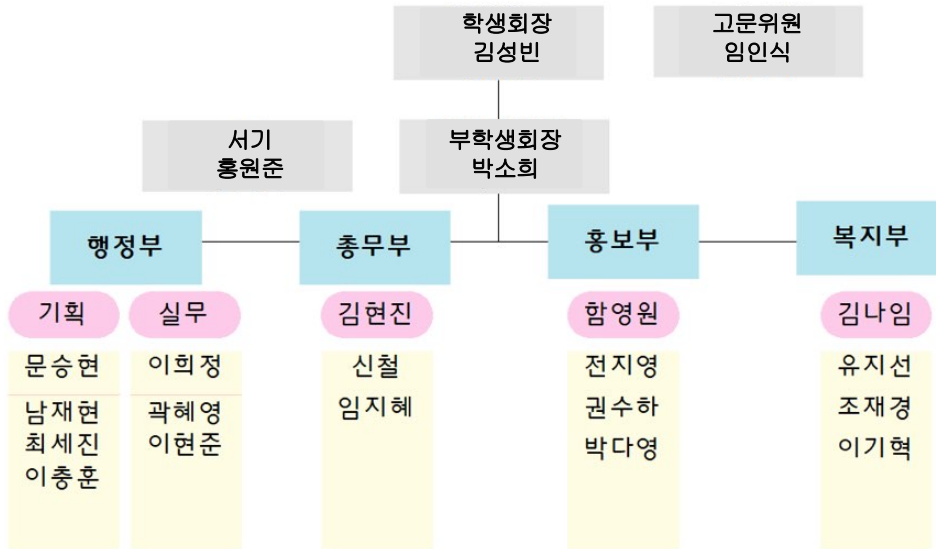
아무쪼록 학과 모든 구성원과 학부모님,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기업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산업학과 학과장 올림

학생회

2018학년도 학생회



기자단



인사발령

학과소식

학과장님이셨던 이신호 교수님께서
2018년 1학기부터 건강과학대학
학장님으로 승진 임명 되셨고,
신임 학과장님으로
김기성 교수님께서 부임 하셨습니다.

실습발표회



2018년 3월 29일에 실습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2017년 겨울방학 때 실습에 참여한 총 21명의 3, 4학년 학생들은 각 기관에서 실습한 내용과 소감 등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한의사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바이오 F&C, 차움삼성분원,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습을 경험한 재학생들의 발표는 실습을 다녀오지 않은 2, 3학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동기 부여를, 이제 막 전공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신입생들에게는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다.

신입생 SUPER WEEK



이색 라면 끓이기

2018년 3월 26일부터 1주일 동안 신입생 Super Week가 진행되었다.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학과는 학생회관 식당에서 신입생 이색 라면 끓이기 대회도 개최했다. 신입생들이 팀을 이뤄서 맛 경연을 펼쳤고, 교수님들도 함께 하셨다. 우승팀과 2, 3등 팀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수여되었으며, 행사 후반부에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지면서 학과에 대한 사랑도 키울 수 있었다



졸업생 간담회

3월 28일에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취업 특강과 함께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차병원의 김현정 선배, 메디톡스 제약기업의 오은지 선배, 차움의 박원태 선배가 대학생활과 취업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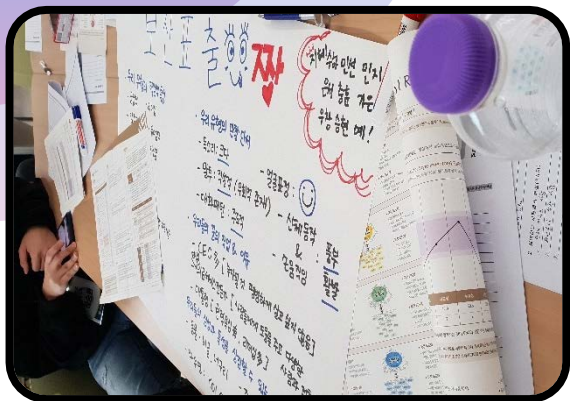


신입생 SUPER WEEK

진로 로드맵

3월 29일에는 신입생들이 자신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진로 로드맵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은 서로 많이 친해지지 못해 어색하기도 했지만, 서로의 비전과 꿈을 발표하고, 더 많이 아는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도 공유하며 점점 친구가 되어갔다^^

이루고 싶은 꿈도 다양하고 졸업 후 진로도 창업부터 기업에 취직하는 것까지 가지각색이었지만, 모두 보건의료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점은 똑같았다.



학과 비전/슈퍼스타 차

Super Week 마지막 날인 3월 31일에는 학과비전 발표와 슈퍼스타 차 선발대회도 개최되었다. 학과 비전은 알차고 실용적인 것으로 유명한 우리 학과 커리큘럼과 취업 한 선배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현하였다. 이어진 슈퍼스타 차 선발대회에서는 걸스데이와 싸이의 노래에 맞춰 현란한 무대를 선보였다. 매우 큰 호응을 얻어 3등에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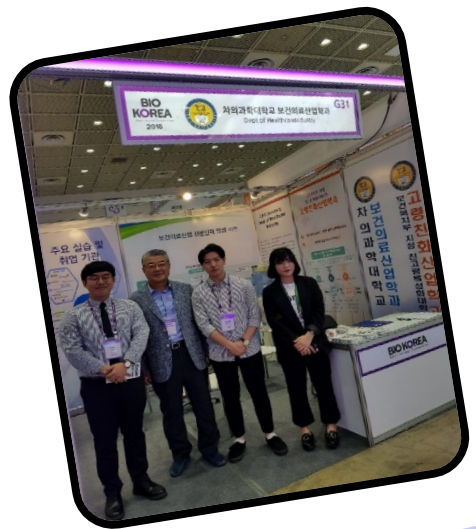
학과 총 워크샵



학과 총 워크샵이 2018년 4월 6일-7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렸다. 모든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과 비전도 공유하고, 친목도 다질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선후배 간 각종 게임과 장기 자랑 경쟁도 하면서 소속감을 확인하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다. 청평의 고요함과 싱그러운 자연에 취해 하늘에 별이 뜬지도 모르고 친구들과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Bio/Medical Korea



2018년 5월 9일-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바이오/메디컬 코리아'에 학과 모든 구성원이 참여했다. 우리 학과도 독립 부스를 설치하여 학과를 홍보 하였고, 행사에 참여한 수많은 보건의료산업 기관/기업들을 보면서 보건의료산업의 밝은 미래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세미나와 설명회도 개최되었는데, 내용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건 아니었지만, 최근 보건의료산업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체육대회와 해솔축제

2018년 5월 23일에는 체육대회와 해솔축제가 열렸다. 오전에 진행된 체육대회에서 우리 학과가 축구 결승에서 간호학과에게 패했다. 오후에는 스포츠의학과, 보건복지행정학과와 한 팀이 되어 단체전에 임했다.

비록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해 4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학과 전체가 하나 되어 후회 없게 열정을 불태우며 흘린 땀 방울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



체육대회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해솔축제가 열렸다. 해솔마당에서 약 1,000명분의 불고기도 제공되어 맛있게 먹으며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우리 학과의 권수하 학생과 김성빈 학생이 '해솔 갓 탤런트'에 듀엣으로 출전하여 윤종신의 '종니'를 불러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진 학교 동아리들의 공연으로 학생들과 교수님들 모두 폭소와 함박웃음을 지으며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렸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견학

2018년 5월 29일에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견학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대웅제약을 둘러보았다. 첫 방문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의료산업 벤처의 중요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2조로 나뉘어 테크노파크와 대웅제약을 방문했는데, 강의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인상 깊었다.



보건의료산업 동향

보건의료산업 혁신 창업 센터

보건복지부는 국내 바이오벤처 창업이 2000년에 108개였던 것이 2016년에 230개로 증가하고, 투자 자금도 2012년에 1,052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 4,686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확대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 3월 20일에 접근성이 우수한 서울역 근처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창업센터)'를 개소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센터는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보건의료산업 혁신창업센터 운영 개요도



보건의료산업 혁신 창업 센터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센터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 **첫째**, 기술 스카우터가 우수 아이디어와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시제품 제작, 특허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관리/지원 한다.
- ✓ **둘째**,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통해 창업 기업이 겪는 자금이나 기술, 판로개척 등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때,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4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1:1 상담을 제공한다.
- ✓ **셋째**, 건강보험 등재, 신의료기술평가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상담을 통해 제품 출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헬스케어 기업 중국 시장 진출 발판 마련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중국의 글로벌혁신센터가 2018년 3월 16일 코엑스에서 한-중 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 기업상담회(한-중 상담회)를 주최했다. 한-중 상담회는 우리 ICT 기업과 중국의 바이어와 투자자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 시장 판로를 확보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베이징과 상하이로 오가며 개최해왔다.

올해 한-중 상담회에는 후난성 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하이핑하이테크치업유한공사 부총재, 쑹저투자그룹 이사장, 후난성 주한상무대표처 상근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중국 후난성 의료기기산업협회 간 헬스케어 및 ICT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옴니씨앤에스, 릴리커버 등 10개 국내 ICT 기반 헬스케어 대표 기업이 중국 측에 소개되어 향후 중국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였다.



헬스케어 기업 중국 시장 진출 발판 마련

국내 ICT 기반 헬스케어 기업

옴니
씨앤에스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업체

릴리커버



1. 영상기반 피부진단 관리와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개선이 가능한 휴대용 피부 미용기기 개발
2. 40가지 피부타입 분석 알고리즘 개발

버즈풀



1. 의료 ICT 분야에 집중 투자
2. 2017년에 인공지능 자궁경부암 판독 시스템 개발

더블
에이치



1.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개발
2. 의료용 라이트 테라피 기기를 LED를 이용하여 가정용 기기로 개발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 6월 말부터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정부로부터 총 13.5억원을 지원 받아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작하고 병원에서의 적용도 지원 받게 된다.

올해 지원 대상 의료기기로 맞춤형 보조기, 인체 삽입형 치료물, 수술용 도구 및 가이드가 우선 선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올해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내년에는 성형외과와 치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기기 및 맞춤형 보조기



유아 교정 헬멧



발가락 교정기

인체 삽입형 치료물



두개골 함몰부위
수술용 임플란트



맞춤형 골반
이식용 임플란트

수술용 도구 및 가이드



무릎인공관절
수술시 구멍을
뚫기 위한
드릴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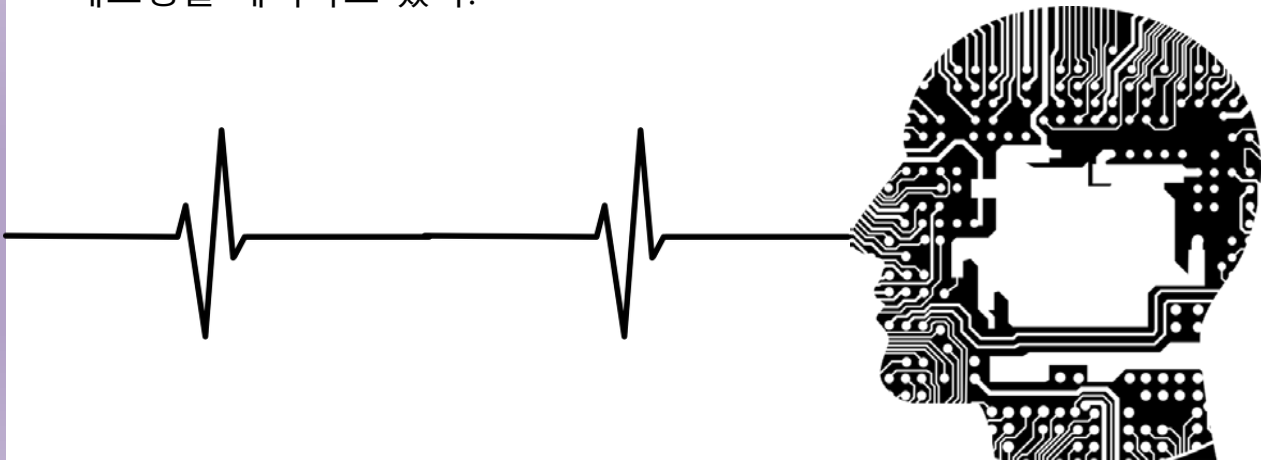
치아 임플란트를
구멍 부위에
정확히 삽입하기
위한 드릴 가이드

한국형 정밀의료 서비스 'Dr. Answer'

우리나라 AI 기반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5년에 17.9억 원이었는데 오는 2020년에는 256.4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약 70.4%의 성장률로 관련 분야 세계 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18년 4월 30일에 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사업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형 정밀의료 서비스인 'Dr. Answer(Ai, network, software, er)'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닥서 앤서 개발을 위해 서울아산병원과 수도권 및 권역별 거점 병원 등 총 25개의 관련 기관과 뷰노, 제이엘케이인스펙션, 카카오브레인 등 총 19개의 ICT 관련 기업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357억원을 투입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1차년도(2018년)에 3개 이상 질환의 시제품 개발을 착수하고, 2차년도부터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한국형 AI정밀의료 서비스, '닥터 앤서' 개발 Sta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월 1일 보도자료,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 헬스(One Health) 패러다임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 보건의 날 (WHO 창립일인 1949년 4월 7일을 기념)을 기념하며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으로 '원 헬스(One Health)'를 제시하였다.

원 헬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건강이 동물, 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협력이 조화를 이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원 헬스는 1990년대 축산업이 대형화되면서 가축 감염병 예방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급증하여 환경 내 항생제 잔류, 동물 항생제 내성 증대, 야생 생태계의 교란과 신종플루, SARS, Eloba, MERS 등 2000년 이후 주요 유행 감염병의 약 3/4이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경각심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보건안보(Health Security)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과 식물-동물-환경의 상호 연관성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8) "보건복지부, 2018년 보건의 날 계기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 '원 헬스(One Health)' 제시", 보건복지부 4월 6일 보도자료, 세종특별
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산업 동향

주요국의 최근 보건의료산업 육성 동향

✓ **미국**은 2016년 12월 13일에 발효된 21세기 치유법(The 21st Century Cures Act)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분야 규제를 개혁하면서 정밀의료 등 미래 보건의료산업 관련 투자를 확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치유법에 근거하여 NIH 산하 NCATS를 중심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첩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IRB) 및 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건의료 분야에 약 63억 달러가 투자되는 등 규제는 완화되고 투자는 늘어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영국**은 미래 보건의료 전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국가 전략계획(Strategic Plan, SP)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 질병 극복, 의료비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P에는 보건부가 관장하는 보건의료 Delivery Plan 2015-2020, 의료연구심의위원회가 관장하는 Research CHANGES Lives 2014-2019 등이 있으며 2020년까지 약 8.2억 파운드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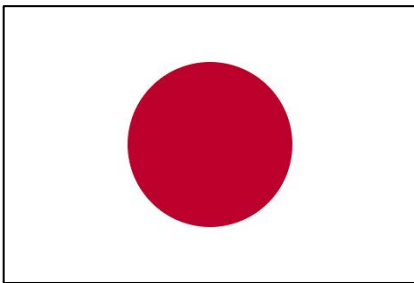
보건의료산업 동향

주요국의 최근 보건의료산업 육성 동향

✓ **유럽연합(EU)**은 EU Horizon 2020을 기반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감염병 예방 및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2020년까지 EU 전체 R&D예산의 9.7%가 투자된다. 특히, 개인 별 맞춤형 헬스케어 패키지 개발 프로그램인 Second Innovation Medicines Initiative 에 32.7억 유로가 배정되었다.



✓ **중국**은 Health China 2030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보건의료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점 육성 영역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바이오 의약을 선정하고, 건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 **일본**은 보건의료 2035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린 헬스케어, 라이프디자인, 글로벌 헬스 리더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개혁을 구체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18)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 세종특별시: 관계부처합동.

미국 FDA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LawsEnforcedbyFDA/SignificantAmendmentstotheFDCA/21stCenturyCuresAct/default.htm> ,2018년 5월 5일 접속).

미국의 의료기기 규제

미국 FDA는 모든 의료기기를 규제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FDA의 의료기기 등급 구분 및 규제

1등급

일반규제

- 위험도가 가장 낮으며, 2, 3등급 의료기기 보다 설계 또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 고무붕대, 검사장갑, 수지형 수술기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최소한의 규제를 받는다.

2등급

일반규제 및 특별규제

- 안전성과 효능 확인에 있어 일반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못해 특별 규제가 필요한 경우이다.
- 파워휠체어, 주입 펌프 등이 여기에 속한다.

3등급

일반규제 및 시판 전 승인

- 일반규제나 특별규제 만으로는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충분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구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이때 적용되는 각 규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반규제(General Control)

【공장시설등록(FDA 2891양식) → 의료기기 리스트 제출(FDA 2892양식)
→ 시판 전 신고서(510K) 제출 → FDA 심사 → 승인 → 시판】

특별규제(Special Control)

일반규제의 FDA 심사 단계에서 사용자 모니터링 및 사용 설명서 제작 등 특별규제가 추가된다.

시판 전 승인(Premarket Approval, P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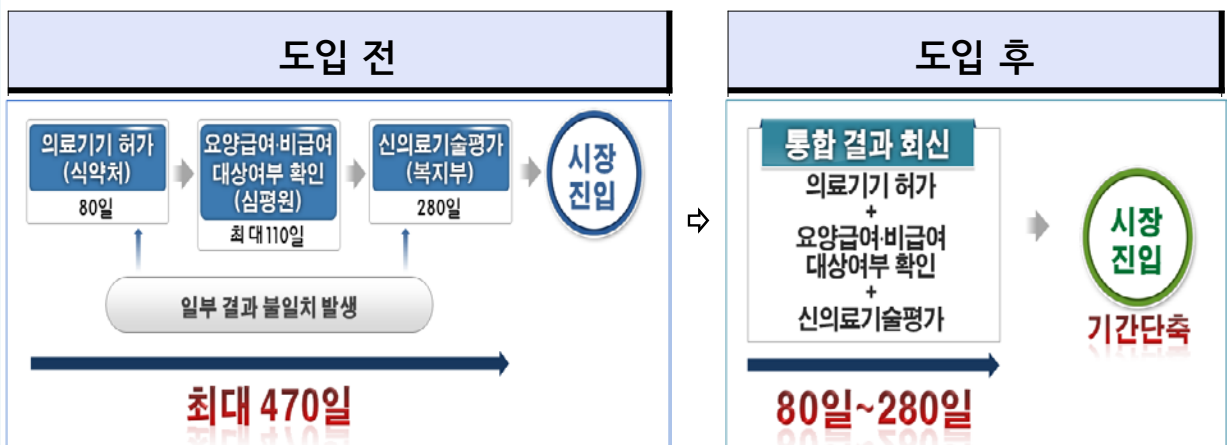
일반규제에 임상 자료, 동물실험 자료, 임상시험 자료, 공장시설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심사가 추가된다.

한국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및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규제 개혁을 통해 올해부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통합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접수를 식약처로 일원화하고, 허가 및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기존에 '식약처 허가→요양(비)급여대상 확인→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거쳤던 순차적 평가절차 소요일의 228일을 감소시켜 평균 242일 정도만 걸리도록 하였다. 또한, 심사 각 단계마다 평가자들끼리 심사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단계 별 진행 상황도 자동으로 알려주며, 평가 별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자에게 같은 자료를 기관 마다 요구하던 부작용도 해소되었다.

[통합심사 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참고문헌]

KOTRA(2017) 한눈에 보는 수출유망국, 서울: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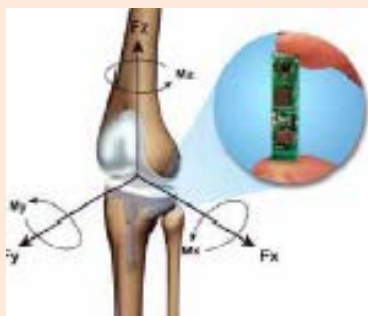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2018)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4월 23일 보도자료,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산업 분야 미래소재 원천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 미래소재는 AI, IoT, IoH, 헬스케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을 뒷받침 할 하드웨어의 결정 요소이다.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미래 핵심 30대 소재 중 건강 분야와 관련해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웰니스 바이오 소재로 토탈 라이프케어 소재, 인체 장기 대체 및 복원 소재, 스마트 약물전달 소재 등 3개 분야 9가지 미래 소재를 생체적합 소재로 선정했다.



[활용 사례]

자가발전
바이오 배터리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



[활용 사례]

염증관리 및
뼈 재생 촉진
인공관절



[활용 사례]

심박조율기용
자가발전
바이오배터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웰니스 바이오 소재

< 분야 > 토탈 라이프케어 소재

종류	기술핵심	활용가능분야
IoT/AI기반 바이오센서 소재	생체정보 감지와 모니터링	맥박, 소화, 혈당 등 생체 정보 감지 센서
인체이식형 바이오 소재	인체 면역반응에 의한 바이오 필름과 세균 감염에 의한 부작용 억제	스마트 스텐트, 염증관리 인공관절
바이오 배터리 기술	면역 거부반응 조절 기술과 유연 바이오 배터리 소재	심박조율기용 바이오 배터리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4차 산업혁명 경쟁 = 소재 경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월 17일 보도자료,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웰니스 바이오 소재

< 분야 > 인체장기 대체 및 복원 소재

종류	기술핵심	활용가능분야
감각보조용 바이오닉 소재	감각기관 노화에 따른 기능 퇴화를 재생 또는 보조	감각증강 소재, 인공피부 소재
골 대사 조절 소재	골밀도 저하로 증가하는 골절 사고에 따른 부상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생체적합 골 이식 소재기술	골다공증 유래 골절 치료재, 고기능성 골 시멘트
결손공간감응 4D 프린팅 소재	골 조직 결손에 따라 발생한 공간에 맞춤형 골 재생 소재 기술	바이오 소재 기반 4D 프린팅 소재
장기기능 맞춤 매트릭스	복합세포 프린팅 기술을 통한 장기기능 맞춤형 매트릭스 소재기술	바이오 소재 프린팅 산업, 맞춤형 인공장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웰니스 바이오 소재

< 분야 > 스마트 약물전달 소재



기업 인터뷰

셀 바이오텍

Q: 기업 소개

A: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기도 김포에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연간 약 650억입니다.



Q: 주력상품

A: 주로 유산균을 이용한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토종 유산균 개발과 유산균의 고농도 배양법 개발, 고농도 유산균 원말 제조방법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인재상

A: 바이오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외국어에 능통하며 진취적인 사람이 취업에 유리합니다.

KS Medical

Q: 기업 소개

A: 서울시 강남구에 있으며, 혈액 관련 의료기기를 혈액원 및 대학병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Q: 주력상품

A: TSCE-II, T-SEAL II와 함께 특허를 받는 SPECTRA OPTIA 등이 있습니다.

Q: 인재상

A: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의학용어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며, 의료기기와 생물학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으면 취업에 유리합니다.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Q: 기업 소개

A: 연간 매출액이 200억 달러에 이르고, 한국지사는 강남구에 있으며 직원은 약 600명 정도입니다.

Q: 주력상품

A: 바이오 프로세스 관련 제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종양, 백혈병, 심장병, 유전병 등 난치성 질환을 예측하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장비가 있습니다.

Q: 인재상

A: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 영어 회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턴십을 거쳐 실무능력을 사전에 많이 기른 인재가 취업에 유리합니다.



파미니티

Q: 기업 소개

A: 경기도 과천에 있는 의약품 소재 연구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Q: 주력상품

A: 식약처 인정을 받은 기억력 개선 소재 BF-7과 식약처 최초 갱년기 남성 건강 개선 소재 MR-10등이 있습니다.

Q: 인재상

A: 외국어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춘 상황에서 제약과 R&D 기획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으면 취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박현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실습)



Q: 진흥원으로 실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A: 평소 공공기관에 관심이 많았고 짧은 기간이라도 업무와 근무 환경 등을 직접 느껴보고 먼저 기관에 진출하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Q: 어떤 업무를 담당했나요?

A: 디지털헬스케어에 관련 업무를 배웠습니다. 상세하게는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기업 정리, 헬스케어 미래관 마케팅 방안, 보고서 작성법, ICT기반 의료시스템 시범사업 설명회와 관련된 업무도 배웠습니다.



Q: 앞으로 진로 계획은?

A: 우선은 국제의료와 관련된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A: 평소에 고민했던 것들을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수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실습)



Q: 진흥원으로 실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A: 평소에 국제의료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해외 환자 유치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의료본부 해외 환자 유치팀에 지원했습니다.

Q: 어떤 업무를 담당했나요?

A: 해외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사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Q: 앞으로 진로 계획은?

A: 국제의료와 관련해서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제 2외국어를 배울 생각입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A: 우리 학과는 매 방학 때마다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실습을 하고 나서 제 진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남자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6년도 8월 졸업생 12학번, 2년 차 직장인 남자연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취업 준비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A: 매 학기 가능한 많은 전공과목을 수강하려 했고, 이는 우리학과
졸업생이 누릴 수 있는 큰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생명과학대학 수업들, 학점교류를 통한 인문학 수업들,
외부 실무교육들(R&D 연구지원 전문가, 의료기기RA,
해외환자유치사업 등)을 틈틈이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자격증은 공공기관 지원 시 필요한 수준으로 준비했어요.
3학년 때부터 하계 방학 동안에 인턴을, 동계 방학 동안 학과실습
(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었습니다.

Q: 현재 업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우선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컴퓨터 활용능력과 통계분석 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A: 보건 의료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면 우리학과는 좋은 꿈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는 진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끔은 막막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일에 잘 맞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채워나간다면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질 거예요.



강지윤
(삼성서울병원)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졸업생 13학번 강지윤입니다.

저는 2017년 삼성서울병원에 합격하여 간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종합병원 중 유일한 의료평가 A등급인 삼성서울병원은 하루 평균 약 1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병원입니다.

Q: 취업 준비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A: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진로를 명확히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 학기에 실시하는 보건의료정책 및 실무수업, 어학/컴퓨터 자격증 수업 등은 제가 삼성서울병원에 합격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현재 업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병원 특성상, 의료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학과 전공과목을 열심히 수강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본부 Nurse
<http://nurse.samsunghospital.com>



Q. 학부 시절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모든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A: 교수님들의 가르침대로 성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취업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학과 커리큘럼에 맞춰 스스로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그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시길 추천합니다.



휴학생 소식

안녕하세요?! 16학번 오성경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 옥스퍼드에서 영어 어학연수 중입니다! 영국에 온 지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홈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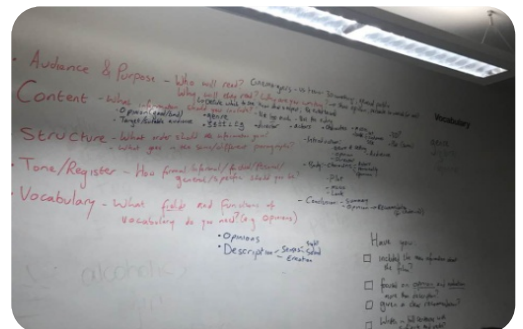
영국 집은 대개 한국 집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다.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어서 신발을 신고 다니고 화장실은 건식이라 바닥을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어학원



나는 6개월 집중과정을 듣고 있다. 레벨은 A1, A2, B1, B2, C1, C2와 같이 6가지인데 나는 지금 C1 과정이다. General 수업과 SPIN 수업이 있는데 General 수업은 레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고, SPIN 수업은 자기 관심사에 따라 골라서 들을 수 있다. 나는 tedtalk과 english literature를 듣고 있다. 아직 영국 발음을 따라 하고 있지는 못하다 πππ





📍 옥스퍼드 시티

런던에 비해 도시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 Westgate라는 큰 쇼핑몰이 있고, 한식당도 몇 곳 있다. 그리고 한인 마트가 있어서 비싸지만 한식을 사먹을 수도 있다. 시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은 옥스퍼드대학교 건물들이고 매일 관광객들로 붐빈다.

📍 나들이

영국 날씨가 우중충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와 보니 정말 좋다. 벌판 같은 공원도 많아서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거나 도시락을 싸가서 먹기도 한다. 영화에서 봤던 삶이다! 영국 레스토랑은 비싼 편이다. 그래서 인도 음식, 태국 음식 등 다른 나라 음식을 더 많이 먹어봤다. 옥스퍼드에는 주제별로 박물관이 매우 많고 모두 무료 관람이라 심심하면 구경을 가곤 한다.



📍 귀국 전 계획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를 다녀왔다. 다음 여행은 2주 동안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갈 예정이다.



추천영화

☑ 현준이의 '인 타임'

제가 추천해드릴 영화는 바로~ 인타임 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세상은 시간이 곧 돈이자 모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시간을 사고 팔기도 하며 강도와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도박의 판돈으로 거래가 되면서 시간이 고갈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이런 세상!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영화의 실마리인 주인공이 한 남자에게 전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이를 통해 전개 되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어때요? 궁금하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시간이 단 5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그리고 지금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5분이 카운트다운이라면? 0초에는 죽는다면?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화 인타임! 꼭 한번은 보셔야 할 영화!





효선의의 '버킷 리스트'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버킷 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1년 후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난하지만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정비사 카터!

백만장자이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잭!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공통점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우면서도

단 한가지 공통점, 인생의 끝이 1년 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어느 날 카터에게 잭은 여행을 떠나볼 것을 제안합니다.

힐링도 하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일석이조의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친 여러분에게 바치는 유쾌한 인생 지침서!

이제껏 열심히만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특별한 버킷리스트!

한번 보면 폭~ 빠질겁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낌없이 즐겨라!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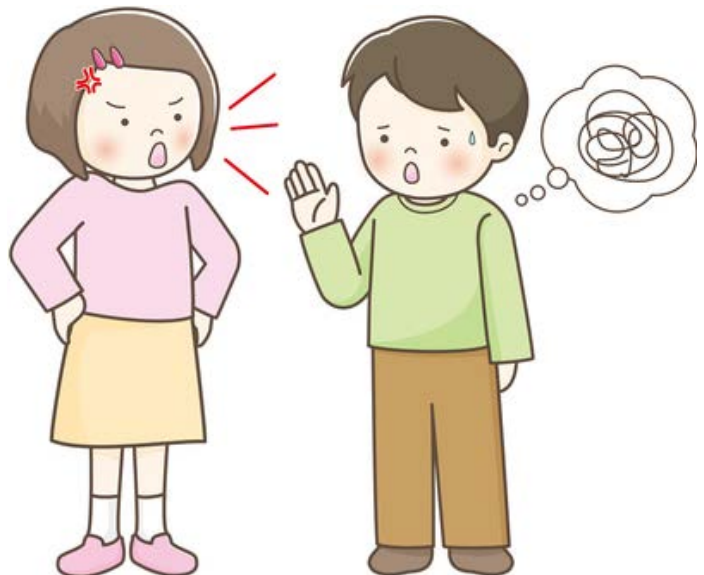
☑ 현진이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여러분들은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화내거나 울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릴 책은 정문정 작가님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무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례한 일을 당했을 경우 감정의 동요 없이 단호하면서도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의사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중간에 간결한 삽화가 있으며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언어구사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며 혼자 마음 고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을 전해주는 실질적인 도움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고 입장을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수현이의 '별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는 피터 H. 레이놀즈라는 캐나다 동화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 아이가 토끼를 따라 길을 나서는데 고양이가 아이에게 '많이 뒤쳐지고 있다'고 말하니 아이가 조금해하며 남들이 간 길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둡고 침침했고,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 새가 나타나 '너가 원하는 쪽으로 가라'는 조언을 해주고 아이는 별이 있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게 되면서 각각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걸 깨닫는 내용입니다. 내가 남보다 뒤쳐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나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읽으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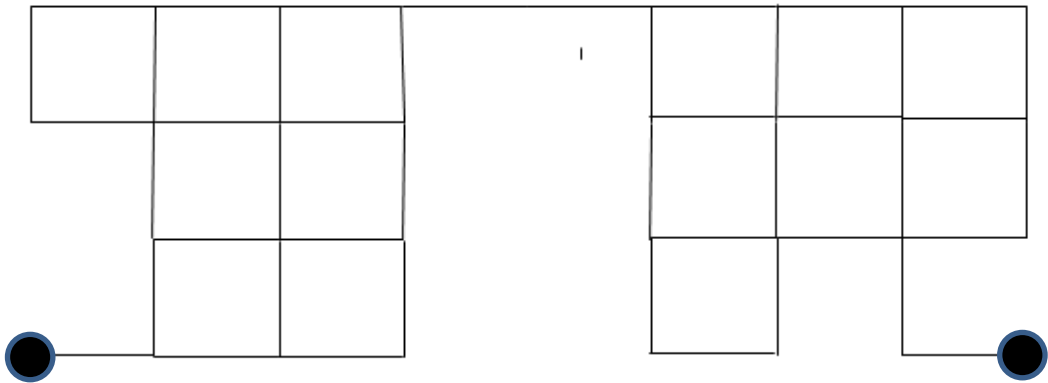




뇌 근육 단련하기*^^*

Q. 원준이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려고 한다.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총 몇 가지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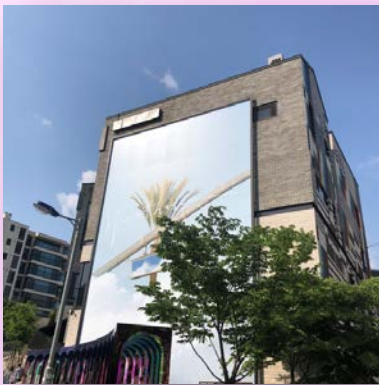
집

도서관

정답은 마지막 페이지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안녕하세요~?! 기자단 단장 16학번 함영원입니다. 최근에 과제 겸 힐링을 위해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바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디뮤지엄에서 열린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라는 전시회였습니다! 날씨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 정말 새롭고 인상 깊었습니다!



전시회는 총 세 챕터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1. 날씨가 말을 걸다, 2. 날씨와 대화하다, 3. 날씨를 기억하다]입니다. 제목부터 감성 넘치지 않나요? ㅎㅎ



첫 번째 챕터는 햇살, 눈 비, 어둠 이렇게 네 가지 요소들을 각 섹션으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섹션은 눈, 비 섹션이었는데요.

학창 시절 문학작품을 배울 때 눈과 비는 항상 부정적이고 불안한 요소로 해석되는 요소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비가 오는 날에는 괜히 축 처지고 그래서 비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항상 부정적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비를 포근하고 서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점에서 매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파랑, 안개, 빗소리
 섹션으로 나뉘는데 각각 시각, 촉각,
 청각적 감각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안개 섹션에서는 실제 물안개를
 구현하는 듯 물이 분사되어
 새벽 공기 속에 놓여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신기했어요!
 빗소리 섹션에서는 빗소리만이 들리는
 어두컴컴한 공간을 걸어가게 하여 정말
 빗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마지막 챕터는 '날씨를 기억하다'인데
 다섯 작가가 날씨가 기록되는 방식을 엿보며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날씨가
 어떤 감정과 형태로 자리 잡는지를 관찰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야리 실로마키'의
 작품이었는데요. 본인이 촬영한 사진에
 그날의 세계적 이슈 또는 개인적인 사건들을
 손 글씨로 적어놓았다고 해요,

날씨를 그 동안 수동적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감각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로
 관람할 수 있었던 참 따뜻한 전시회였습니다!
 우리 모두 문화인이 되어보아요!!


$$\frac{4!}{2! 2!} = 6$$

43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뉴스레터 [제3호]

- 발행/편집장: 김기성
- 편집위원: 이신호, 김기성, 정미현, 박승민, 황혜주, 이평수, 한세미
- 작성: 보건의료산업학과 기자단

(함영원, 김현진, 이영인, 조효선, 김수현

박정찬, 박다영, 박재혁, 이기혁, 이현준, 홍원준)

- 디자인: 이영인, 조효선
- 발행일: 2018년 6월 25일
- 발행처: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화: 031-850-8942 / 팩스: 031-543-9917

이메일: qwertyc@chamc.ac.kr

홈페이지: <http://healthcare.cha.ac.kr/>